

# 치근단 골천공에 의해 야기된 술후 동통을 해결하기 위한 외과적 근관치료의 치험례

## 9

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보존학교실  
허성규\*, 홍찬의, 신동훈, 조용범

### I. 서 론

근관치료 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술후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.

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진단을 들 수 있으며, 그 이외에 감염과 연관된 염증반응, 근관충전 물질과 연관된 염증반응, 치근단 감염의 발생 또는 지속, 또는 치근 파절 등이 술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.

이러한 통증의 대부분은 적절한 처치(경과 관찰을 포함)에 의해 해결이 되지만, 반면 몇 몇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사선 검사 등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임상가를 당황하게 한다.

본 증례에서는 치근단 골천공에 의해 야기된 술 후 통증이 발생한 환자에서 외과적 접근을 통해 치료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

### II. 임상증례

- 나이/성별 : 50/F
- 주 소 : #23 치아의 근관치료를 위해 보철과에서 의뢰됨
- 의과적 및 치과적 기왕력 : N.S
- 현 증 : #23 치아의 치아우식
- 치료 계획 : #23 치아의 근관치료
- 치료 내용 및 경과 :
  - 03. 1. 2. #23 치아 근관치료 시작(발수, 근관장 측정, 근관 성형 및 세척)
  - 1. 9. #23 치아 근관 세척
  - 1. 16. #23 치아 근관 충전 및 임시 가봉
  - 6. 18. 불편감 호소  
타진과 측진에 양성 반응
  - 9. 17. 재근관치료 시작
  - 10. 23. 측진에 더 민감한 반응  
외과적 처치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근관충전 시행
  - 11. 5. 치근단 절제술 시행
  - 11. 12. 발사
  - 11. 21. follow up  
측진에 미약하게 반응
  - 04. 4. N.S

### Ⅲ. 총괄 및 고찰

치근의 골 피개에 결합이 발생해 치근이 골막과 치은에 의해서만 덮여져 있는 경우를 천공 (fenestrations) 또는 열개 (dehiscences)라고 한다. 이러한 결합은 여러 문헌에서 그 발생율이 7.5%에서 20%로 보고되고 있으며, 대부분의 경우 치조골의 협측 면에서 발생한다. 상악 치아보다는 하악 치아가, 구치부보다는 전치부가 더 잘 이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천공의 경우에는 상악에서 더 흔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.

이 결합들은 흔히 양측성으로 발생하며 나이나 치아의 위치 이상 (malposition)이 그 기여요인이며 강한 교합력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. 천공의 경우 상악 제 1대구치의 근심협측 치근과 상악 견치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된다.

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으나, 근관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.

치근단 골천공에 의한 수술 후 통증의 발생은 1973년 Spasser와 Wendt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고, 그 외에 몇몇 증례에서 언급되었다. 대개의 경우 지속적인 통증 없이 저작이나 측진에 의해 통증이 생긴다. 확진을 위해 판막을 거상하고 파충전된 물질을 다듬고 bone을 재형성해주면 통증은 사라진다.

본 증례의 경우, 근관치료 후 5개월 후에도 지속되는 불편감으로 인해 재치료를 시도했으나 증상이 심화되어 외과적 접근을 시도했다. 판막을 거상했을때 골천공 부위로 노출된 치근과 근관충전 물질을 관찰 할 수 있었다. 치근단 절제술 및 역충전 시행 후 판막을 재위치 시키고 봉합을 시행하였다. 외과적 시술을 행한지 4개월이 지난 현재 환자는 증상이 없는 상태이다.

### Ⅳ. 결 론

상악 견치의 경우 골 융기 (eminence) 상부의 얇은 협측 골이 종종 붕괴되며, 골천공 (fenestration)이 때때로 발견된다. 골천공이 존재하는 경우 근관치료 후 가끔 미약하지만 영구적인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다. 이러한 불편감은 치근단 수술로 조절하는 것이 최선책이다.